

# 삼성LED 공식 출범 “Top 추구”

초대 대표이사 김재욱 사장 선임 ... 2015년 세계시장 최상위권 목표

삼성이 차세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LED(발광다이오드)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삼성LED를 공식 출범시켰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4월23일 초대 대표이사에 김재욱 사장을 선임하고, 수원 본사에서 사장의 취임식과 함께 출범식을 가졌다.

김재욱 사장은 “LED 시장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술개발, 생산,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스피드 경영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삼성LED의 주요 거점은 수원 본사와 기흥, 중국 Tianjin 등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 LED 시장 최상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LED시장은 LED TV의 본격 상용화에 따른 LED BLU(백라이트유닛)의 수요 증가 등 응용분야의 급격한 확대에 대규모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LED시장은 2008년 52억달러에서 2013년 약 127억달러로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240억달러 규모로 세계 D램 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CD TV용 BLU는 2013년까지 연평균 약 60%의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LED는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까지 기흥공장의 유희 반도체 설비를 LED 생산라인으로 연내 전환하는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3>